

코로나 팬데믹 기간 광주지역 대출 ‘부동산업’ 집중 증가

2023년 기업대출 비중 가장 높아
산업간 대출 배분 효율성 문제 노출
“고성장산업 대출 지원 확대 바람직”

코로나 팬데믹 기간 광주지역 기업대출 비중이 부동산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고성장산업에 대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15일 기획금융팀 남충현 차장이 작성한 ‘광주지역 기업대출 산업별 구성 현황 및 배분 효율성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광주지역 전체 기업대출 중 비중 1위 업종은 부동산업(22.8%)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발생 전후 2019~2023년 기업대출 총액이 급증한 가운데 광주지역의 부동산업의 대출 비중 증가폭(+2.6%p)은 지역 산업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뒤는 사업서비스업(0.5%), 공공행정 및 기타·예술, 스포츠 및 여가(각 0.4%), 금융 및 보험업(0.3%) 등 순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광주지역 기업대출은 증가액의 32.9%가 부동산업(임대업, 개발·공급업, 관리업, 중개·자문·감정평가업)에 배분되는 등 특정 산업에 집중된 모습을 나타냈다.

이처럼 기업 대출이 부동산업에 편중됨에 따

라 산업 간 대출 배분 효율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실제 부동산업이 노동생산성(1인당 부가가치) 수준에서 가장 높지만, 동 산업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2015~2023년)은 -2.0%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반면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정보통신업 등은 노동생산성 수준(각 전산업 평균의 283.8%, 177.6%)과 증가율 모두 전산업 평균(연평균 1.9%)을 큰 폭으로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충현 차장은 “광주지역 기업대출은 기존 노동생산성 수준이 높은 산업에 배분됐지만 노동생산성 및 부가가치 측면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더 많이 배분되지 않고 있다”면서 “고성장산업에 대한 대출지원 등을 확대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남 차장은 이어 “무형자산 비중이 높아 담보여력이 부족한 정보통신업 등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가치평가를 개선하며 기술보증 등 고성장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5~2023년 광주지역 기업대출 증가율은 약 68.2%에 달해 동 기간 중 명목 GRDP(지역내총생산)의 증가율(33.3%)을 상회했다. GRDP 대비 기업대출 비율은 동 기간 46.9%에서 56.7%로 증가했는데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지원 조치 등 영향으로 2019년 말 이후 기업대출 증가세가 가속화했다. /임채만 기자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15일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방송이 나오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중기청, 온누리상품권 결제금액 1천억 돌파

1~8월까지...광주 전남비 587% ↑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전남도 3배 ↑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온누리상품권 결제금액이 1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온누리상품권 결제금액이 1천억원을 넘어섰다.

광주지역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약 152억원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약 1천469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587% 증가했다. 특히 월별 결제 추이를 보면 지난 4월 75억원에서 5월 114억원, 6월 146억원, 7월 210억원, 8월 308억원으로 매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급격히 늘었다. 전남지역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약 72억원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약 24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이처럼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대폭 증가한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는 골목형 상점가의 대폭 확대에 인한 사

용 지역 및 가맹점 증가다.

광주의 경우 2024년까지 6개였던 골목형 상점가가 2025년에만 37개가 추가로 지정됐다. 전남도 지난해까지 13개였던 상점가가 올해 15개가 새로 지정되면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형 상권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둘째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구매 시 상시 10%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지난 5월부터 9월까지의 매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만원 이상 누적 사용 시 10% 환급 행사(최대 2만원)’가 함께 진행됐다. 이로 인해 상시할인 10%와 환급행사 10%가 더해져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돌아갔다.

이에 따라 올해 8월까지의 결제액을 기준으로 보면, 지방비 부담 없이 국비만으로 광주지

역은 약 200억원, 전남지역은 약 48억원 규모의 생활비 절감 효과를 거둔 셈이다.

또한 지난 8월 24일부터 연말까지는 특별재난 지역 환급행사도 진행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 삼도동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최대 2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의 온누리상품권 결제금액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찬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지역 상권의 매출 확대는 물론, 가계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정책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가맹점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안태호 기자

GICON, 광주 게임기업 해외 진출 발판 마련

오늘부터 ‘태국게임쇼’ 공동관 운영
지니소프트 등 지역 3개 게임사 참여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15일 “16일부터 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2025 태국게임쇼(Thailand Game Show 2025)’에 광주글로벌게임센터 공동관을 구성해 참가한다”고 밝혔다.

태국게임쇼는 동남아 최대 규모의 게임 전시회로 올해는 ‘게임스컴 아시아(gamescom asia)’와 공동 개최되며 아시아 게임산업의 주요 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GICON은 이번 전시를 통해 광주 지역 게임기업 3개사의 우수 콘텐츠를 선보이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동남아 시장을 본격 공략해 광주 게임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 공동관에는 주식회사 지니소프트, 주식회사 아름게임즈, 주식회사 데브엔리미트 등 총 3개 광주 지역 게임사가 참여한다.

(주)지니소프트는 PC·모바일 기반 로그라이크 액셀링 게임 ‘심야자습(Midnight Study)’, (주)아름게임즈는 모바일 SNS 게임 ‘고양이와 스프: 말랑타운’과 캐주얼 게임 ‘666666’ 만에 탄생한 흑마법사’, (주)데브엔리미트는 모바일 댄스 엔터테인먼트 게임 ‘SPARKY’와 오픈라인 버전 ‘SPARKY Mini’를 각각 선보인다.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태국게임쇼 참가는 지역 게임 기업들이 단순 홍보를 넘어 해외 파트너십과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글로벌게임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여름철 폭염 운영질환 예방 수칙

실외작업장 운영질환 예방 기본수칙

- 3시~4시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작업 중 규칙적 물 섭취
- 5시~6시 작업장소 그늘 마련, 선풍기·이동식 에어컨 설치
- 7시~8시 무더위 시간(14시~17시) 옥외작업 최소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호젓해서 좋은 신안지도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3, 8, 13, 18, 23, 28일

※ 신안군내시장 : 송도수산시장, 신안젓갈타운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신안군 광고문의 : 062)650-2099